

역적패당이 떠드는 《보수정치의 새로운 가치론》을 평함

평화변명을 향한 민족사의 흐름에서 밀려나 개발도 도토리신세가 된 남조선의 《자유한국당》이 살기를 찾아보려고 《쇄신》과 《혁신》의 민지구를 일으키던 끝에 《보수정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가치》라는것을 내놓고 요란히 광고해대고있다.

그 무순 《6대혁신가치》니, 《6대핵심가치》니 하는 잡동사니들로 매다질된 《새로운 가치론》이라는것은 아무리 눈을 비비고 살펴보아도 《새로운 것》이란 표물만큼도 찾아볼수 없다.

과도처럼 밀려오는 민족화해의 시대에 부응하여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몸부림은 전혀 보이지 않고 민심을 우롱하는 말장난뿐이다.

보수패당이 떠드는 《새로운 가치론》은 장마철의 어지러운 탁류와 같이 그 맑음에 대해 논하는것 자체가 이 불성실이지만 민대의 요동만 한 체면도 없이 해피한 껌변으로 여론의 환심을 사보려고 꾀하고있는 조건에서 그 허황성거 불순한 속내에 대해 까뻑히 보고져 한다.

이번에 《자유한국당》은 보수정치가 지향해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로 《국가도덕성》을 내세웠다.

이들의 본질은 높은 도덕성이며 《대통령을 포함한 공직자개인의 권력 남용이나 자의적행사로 국가도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권력구조개혁에 앞장 선다는것》이 그 골자이다.

이들이 제창하는것을 보면 보수야말로 누구보다 고상한 도덕관을 지니고 사회발전엔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지난 시기 세상을 들었다놓은 리명박, 박근혜도가 저지른 특대형 범죄행위도 철저히 개인의 부정부리와 권력형에 국한된것으로서 보수와는 인연이 없다는것이다.

순양이가 자기는 날고기가 아닌 풀을 뜯어먹는다고 하는 이소프의 우화를 련상케 하는 극히 파렴치한 껌변이 아닐수 없다.

그 어느 시대,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도덕성의 가장 중요한 지표는 인민을 대하는 관점과 립장이다.

하다면 한때 리명박, 박근혜와 같이 춤추던 남조선의 보수패당의 행태는 어찌하였는가.

《퍼담홀려 일하면서도 (홍수저)》로 취급받는 빌어먹을 세상에 대한 분노로 무엇이래도 해야 한다는 절박감으로부터 투쟁에 나섰다. 《열감, 아버지가 개, 돼지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개, 돼지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초벌을 들었다.》...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이 박근혜당의 반인민적악정을 반대하여 초벌항쟁에 일떠서면서 웨친 이 피타는 절규

가 그에 대한 대답이다.

남조선인민들을 말하는 미물로 여기면서 온갖 불법부법행위를 꺼리낌없이 감행하고 진보민주세력을 가혹하게 탄압하며 비렬한 모략책동으로 보수 《정권》을 연장하고 권력형부정부패를 일삼아온것이 다름아닌 보수의 본래이고 변할수 없는 체질이다.

쉬파리는 시궁창의 악취를 향수로 느끼고 감람속의 미꾸라지는 감람관을 더없는 천국으로 여긴다고 하였다.

리승만역도의 《자유당》으로부터 시작하여 오늘의 《자유한국당》에 이르기까지 부정부패와 채륜페덕의 계보를 이어오며 《색은 당》, 《매덕당》의 악명을 떨친 보수패당이 별안간 《도덕성》이라는 면사포를 쓴다고 하여 색은 몸통에서 나는 구린내를 감출수 있겠는가.

지금 보수패거리들이 그 무순 《정의로운 보수》니, 《혁신》이니 하고 너스레를 떨고있지만 이자들은 속으로 보수 《정권》에 철주를 내린 민심에 대한 복수의 칼을 갈고있는 악마들이며 파쑈독재부활에 명줄을 걸고있는 극악한 파쑈꾼들이다.

결국 이자들이 떠드는 보수의 《도덕성》 라명은 창녀의 절개자랑과 다를바가 없는 게나발일것이다.

《자유한국당》은 《튼튼한 안보》

니, 《당당한 평화》니 하는것도 《보수정치의 새로운 가치》라고 광고하고있다.

력대 보수패당이 《안보정당》으로 자처하며 그 어느때나 칠팔월 개구리보다 더 소란하게 떠들어댄것이 《북위협설》, 《전쟁위협설》이다.

전쟁의 먹구름이 떠도는 음침한 환경을 보수가 살아갈 최적의 생태조건으로 삼는 역적무리들은 역사적인 북남 수뇌상봉과 공동선언들의 채택으로 밝아오는 평화의 세상을 두려워하며 그것을 막아보려고 《안보》라명을 불어대고있다.

《자유한국당》패거리들은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군사분야합의서가 채택 발표된대 대해 지상, 공중, 해상을 모두 내준 합의이다, 스스로 안보를 무장해제했다. 《한미동맹》에 균열이 갔다, 국민들이 참말로 잘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걱정이 여간 크지 않다고 고아대며 《자유한국당 남북군사합의서검증특별위원회》라는것까지 조직해내는 광대놀음을 벌였다.

전쟁이 없는 조선반도는 적대와 대결에 기생하여 살아가는 보수패당에게 있어서 서식지의 상실과 《안보장사》의 끝장을 의미한다.

하기에 우발적인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평화적환경을 구축하자라는것을 죽도

록 싫어하는 보수패당이 떠드는 《튼튼한 안보》, 《당당한 평화》란 결국 동족대결과 전쟁위기로 저들의 더러운 명줄을 이어가자는것의 다름이 아니다.

《자유한국당》이 낮간지럽게 설파하는 《따뜻한 사회》와 《준비된 미래》라는것도 민심을 우롱하는 요설에 불과하다.

보수의 품이 그렇게 따뜻해서 《세월》호의 무고한 어린 생명들이 바다속에서 수장되어 생극을 당했고 백남기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참혹하게 쓰러졌는가.

보수가 만든 사회가 그렇게 아름다워서 정의와 진리를 주장하는 광범한 인민대중이 각종 살생부에 올라 인권을 자유를 무참히 짓밟혔고 남조선이 자살순위 세계 제1위를 기록하였는가.

보수가 내흔드는 《따뜻한 사회》란 민중을 지렁이처럼 여기며 각종 요시찰 명단같은것들을 조작하여 탄압하고 민주민권을 강그리 말살하는 지옥사피이며 《준비된 미래》란 가진자가 더 잘살고 못 가진자는 더욱 빈궁속에 몰아넣기 위한 제2, 제3의 리명박, 박근혜 《정권》의 부활이다.

역사와 민심의 사형선고를 받고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권력의 자리에 다시 제마라올라가 《괴의 복수》를 하겠

다는것이 보수패당의 검은 속통에 껴차있는 양심이다.

이러한 불순한 기도를 실현해보려고 역적패당은 속에 없는 《새 가치론》을 내놓고 민심을 낚으려 하고있고 개혁의 발목을 잡으며 남조선사회발전엔 제동을 걸고있다.

독사는 열백년 허물을 벗어도 독사인것처럼 《자유한국당》이 아무리 《혁신가치》를 떠들어대도 그 추악한 본색은 절대로 달리 될수 없다.

지금 남조선각계는 민족화해와 평화변명의 도도한 흐름에 눈금을 틀어막고 파기의 암흑속에서 꿈틀대는 보수무리들을 놓고 《우물안에 앉아 리념의 색안경을 끼고 변화를 거부하는것들》, 《상진벽처럼 달라진 세상에 비해 하나도 변하지 않은 수구보수세력》이라고 침을 뱉고있다.

격류하는 대세에 역행하는자들은 역사의 파도에 삼키워 멸망하는 길밖에 다른 운명이 차례질것기 없다.

남조선 각계층은 력사의 흐름을 암흑의 파기에서 되돌리려고 발악하는 보수패당의 책동을 후호도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보수적폐청산의 불길드높이 자주와 평화, 통일의 새 아침을 기어이 안아와야 할것이다.

김연이
(《로동신문》에서 전재)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을 앞당기기 위한 지름길

조선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하는것은 민족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며 우리 겨레의 평화롭고 안정된 삶을 보장하기 위한 관건적인 문제이다.

력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은 조선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위협과 적대관계를 근본적으로 종식시켜 이 땅을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현실적인 평화선언이다.

북과 남은 제5차 북남 수뇌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평화합의서》를 《9월평양공동

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였다.

《9월평양공동선언》과 그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군사분야평화합의서》의 채택은 이 땅에서 전쟁위협을 가지고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라는 온 겨레와 전세계의 절대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고있다.

《9월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군사분야평화합의서》를 성실히 리행하는데 북남관계를 더욱 심화발전시키고 조선반도에서 적대관계를 청산하며 평화보장을 앞당기는 지름길이 있다.

《9월평양공동선언》에는

북남관계를 민족적화해와 협력, 확고한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감으로써 북남 관계발전을 통일로 이어가기 위한 제반문제들과 실천적대책들이 반영되어있다.

또한 《9월평양공동선언》은 부속합의서인 《판문점선언 군사분야평화합의서》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리행하며 조선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은 더욱 가속화될것이며 통일과 민족의 번영도 앞당겨 이룰수 있을것이다.

북과 남은 북남군사공동위협회합담합의에 따라 최근

진행된 북남장령군군사회담에서 북과 남은 《9월평양공동선언》 부속군사합의서의 첫 단계실행정형을 종합적으로 점검총화하였으며 다음단계리행에서 제기되는 실무적문제들을 논의하고 필요한 대책을 세워나가기로 하였다.

북과 남이 리해와 신뢰에 기초하여 민족의 대의를 먼저 생각하고 그에 모든것을 지향시켜나간다면 북남관계는 더욱 가속화될것이며 통일과 민족의 번영도 앞당겨 이룰수 있을것이다.

북과 남은 북남군사공동위협회를 조속히 가동하여 군

사분야합의서의 리행실태를 점검하고 우발적무력충돌방지를 위한 항시적인 련계와 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한다.

또한 군사분야에서뿐만아니라 각계각층의 대화와 접촉, 다방면적인 대화와 협력, 다양한 교류를 활성화하여 민족적화해와 통일의 대화가 북남산층리에 융용되 호르도록 하여야 한다.

북과 남이 평화와 번영에 도 향한 성스러운 려정에 언제나 두손을 굳게 잡고 앞장에서 서서 함께 나아가갈 때 민족의 자주통일위업은 앞당겨 성취될것이다.

김현일



법률적, 제도적장치부터 제거해야 한다

최근 북남관계가 화해와 협력, 평화변명의 새로운 흐름을 타고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속에 남조선 각계층에서 북남관계개선을 가로막고있는 《5.24조치》와 같은 법률적, 제도적장치부터 제거해야 한다는 여론이 날로 높아지고있다.

여야정치인들과 정계, 사회단체인사들은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한발이라도 앞서나가면서 《5.24조치》 같은것을 풀어야 한다.》, 《우려측이 《5.24조치》 해체 등 평화와 번영을 지향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울것을 요구하고있다.

문제의 《5.24조치》로 말하면 지난 2010년 리명박역적패당이 모략적인 《천안》호침몰사건을 조작하고 그것을 구실로 하여 공화국과의 접촉과 협력교류를 차단한 대결조치이다.

리명박패당이 《매해 3억US\$의 벌금》, 《시간은 북의 편이 아니다.》고 고이대면서 꾸며낸 《5.24조치》는 북남사이의 화해와 협력을 말갓하지 않는 그들이 실시해온 극도의 동족대결정책의 연장이었으며 또 하나의 악명 높은 반통일조치였다.

보수패당은 이 《조치》라는것을 구실로 민간접촉마저 전면 불허하였으며 민간단체들사이의 통신 련계와 기사교류까지 차단하였다.

그러나 하면 제3국을 우회한 물자반출입을 막는다고 하면서 《합동정점점검단》이라는것을 내오고 부산, 평택 등지의 모든 세관과 항구들에 살벌한 경계망을 펼치고 장부책과 물자들을 살살이 뒤지는 놀음을 벌리었다.

심지어 그 무순 《자금차단》, 《접촉위협》을 떠들면서 남조선 사람들이 제3국에서 공화국이 운영하는 식당들에 가서 식사도 마음대로 할수 없게 오금을 박는 나쁜짓도 서슴지 않았다.

《5.24조치》가 북남관계뿐아니라 남조선인민들에게 준 피해도 막대하다.

남조선인민들이 보도한 자료에 의하면 《5.24조치》발표이후 1년반동안에만 해도 북남민간협력사업에 참가하였던 남조선민간기업들이 입은 경제적피해액은 개성공업지구사업속소, 북남 교역과 임가공중단 등으로 인한 직접손실이 27억 5 000만US\$, 간접손실은 74억 8 000만US\$에 달하였다.

북남협력사업중단으로 물가상승, 외자유출, 기업대량파산 등

우리 겨레가 한자리에 모이면 조국통일의 좋은 방도가 나오고 해내외의 온 겨레가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도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북과 남은 《9월평양공동선언》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북남관계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며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기로 한다.

력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은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쳐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자신의 손으로 개척해나갈것을 확약한 민족자주의 선언이다.

우리 겨레가 한자리에 모이면 조국통일의 좋은 방도가 나오고 해내외의 온 겨레가 힘을 합치면 못해낼 일도 없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북과 남은 《9월평양공동선언》이 가리키는 길을 따

고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안고 뜻과 마음을 하나로 합쳐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북남관계는 민족내부의 특수한 관계로서 다른 누구의 눈치를 보거나 주저할것이 없다. 첨예하고 복잡한 오늘의 세계에서 민중들은 오직 우리 민족자체의 힘이며 북과 남이 뜻과 힘을 합치면 극복 못할 난관이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

북과 남이 힘을 합치면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요구, 공동의 리익에 맞게 능히 순조롭게 해결할수 있다.

북과 남이 손잡고 화해와 평화변명으로 향해 나아가고있는 오늘의 격동적인 시대는 우리 겨레모두를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 리행으로 힘있게 부르르고있다.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밝은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나가기로 하자.

본사기자 김영진

다. 자주 원칙을 견지하여야 민족의 권리와 리익을 수호할수 있고 민족의 운명을 자기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다.

조국통일이 바로 우리 민족자신의 문제이며 민족의 자주권에 관한 문제인것만큼 북과 남의 우리 겨레가 주인이 되어 민족의 자주적의사와 요구에 따라 민족통일교섭

조국통일의 주체의 위력을 강화할 때 민족의 화해와 단합, 나라의 통일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전진이 이루어진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6.15자주통일시대에 당국과 민간이 따로 없이 사상과 정견, 계층의 차이를 초월하여 북남사이의 다방면적인 대화와 접촉, 협력과 교류사업, 민족공동의 통일행사가 활기있게 진행되어 민족적화해와 단합을 힘있게 주도하였다.

우리는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서 국권을 빼앗기고 약국과 분열의 강이던 정인과 뛰어난 슬기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선진문명국,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정의의 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게 될것이다.

은 민족이 뜻과 힘을 합치면 이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서 5천년민중사에서 겪어 온 민족분열의 오랜 력사가 보여 주는 뼈저린 교훈이다.

지나온 조국통일운동의 력사는

결합되는것은 우리 민족사의 필연적추구이며 민족발전의 합법적적요구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 서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희생시키고 지향시켜나가기로 한다. 어떤 경우에도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찾자리에 놓으며 민족의 의사와 리익을 절대적인 기적으로 삼아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방해하고 동족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을 부추기는 외세의 분렬리간책동과 그에 편승하는 일체 행위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조국이 통일되면 우리 나라는 8천만의 인구와 막강한 국력을 가진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민족의 강인한 정신과 뛰어난 슬기로 세계를 앞서나가는 선진문명국, 동북아시아와 세계평화를 선도하는 정의의 강국으로 그 존엄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게 될것이다.

은 민족이 뜻과 힘을 합치면 이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

우리 민족이 북과 남으로 갈라져서 5천년민중사에서 겪어 온 민족분열의 오랜 력사가 보여 주는 뼈저린 교훈이다.

지나온 조국통일운동의 력사는

본사기자 최광혁



조국통일의 주체

자제의 힘으로 이룩해나가는것은 조국강도안에서 외세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갈라져있다. 조선 민족은 수천년을 내려오면서 하나의 혈통을 이어받고 같은 말을 하며 환경에서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다. 모든 조선사람들은 북에서 살건 남에서 살건 해외에서 살건 다같이 조선민족의 피와 땀을 지닌 하나의 민족이며 민족공동의 리익과 공동된 민족적생리와 감정으로 뭉수 없이 련결되어 있다. 그 어떤 힘도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발전된 단일한 조선민족을 영원히 둘로 갈라놓을수 없으며 우리 민족과 민족성을 말할수 없다.

민족자주는 민족문제해결의 핵이며 조국통일운동의 생명성이